朝鮮日報

編輯兼印刷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市中區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電話本局二八〇〇

오직獨立이잇슬뿐

侮辱的信託統治絕對反對

絕大한期待를가젓든 莫斯科 三國外相會議에서는 結局우리朝鮮에對하야 五個年附四個國信託制라는 靑天霹靂가튼 決定을내렷다는 報道를傳하야왓다 이것은두말할것도업시 우리三千萬民族에對한最大의侮辱이아닐수업스며 우리들의憤激이에서더한바 또잇스랴 世界에어느民族 어느國家보담도 빗나는四千年의歷史를가젓고 가장優秀한單一民族에對한 待遇가겨우이것이라! 四十年동안惡毒한日本帝國主義의壓迫으로부터 버서나려고바친無限한피의代價가이것이냐! 허울조흔解放 이것은 畢竟 우리를籠弄한結果以外에는아무것도아니엿다 우리는 이屈辱的決定策에對하야 三千萬이한결가치 最大의피한방울이 남을때까지라도 싸우지안흐면안될것을 굿게굿게盟誓하자

到底히바들수업다

各黨各界서排擊決議

國民黨

이報道는 거이[illegible] 朝鮮이聯合四國에依하야 解放된것은 [illegible] 信託統治란것은 暴惡한 國際關係로서 우리三千萬大衆이 絕對로 容認할수업는바이다 大戰直下朝鮮이 多少不統一의印象을 주게되는것은 主로南北兩斷占領의 [illegible] 朝鮮人의責任이아니다 [illegible] 五個月未滿의 [illegible] 兩斷占領의治下에서도 [illegible] 社會的混亂 [illegible] 朝鮮民族의分裂과 [illegible] 促成하야 四個國이合力하야朝鮮의赤化를 [illegible] 千萬의한사람도 [illegible] 最後까지反對하고 獨立을戰取하여야한다 [illegible] 國民運動의先頭에나서기로決心하엿다

新韓民族黨

[illegible] 이러케된이상우리는 期的으로는 [illegible] 即行動으로써 나가지안흐면 안된다고생각한다 [illegible] 左翼이든 右翼이든 [illegible] 信託制에 反對하고 [illegible] 臨時政府로서도 各黨 [illegible] 한바몽처서 同一한行動을 [illegible]

人民黨

朝鮮信託管理制問題만큼朝鮮에잇서서 重大한問題는 업을것이다 이가치重大한問題를 黨代表로 云云할수는업는것임으로 二十九日 午前十一時 中央委員會를열어 이問題가 어데서인지 實情을把握하고잇는가를 愼重히檢討한後에 우리의態度를 決定하겟다

共産黨

아직具體的인 詳細한報道에 接하지못하얏슴으로 黨으로서는 具體的인것을 말할수업다 그러나 萬一 信託統治가 잇게되니 朝鮮民族으로서는 民族的[illegible]

中協

우리朝鮮은 信託統治를 [illegible] 責任을 [illegible] 解放以後 우리黨으로서는 自主獨立을 絕對目標로 [illegible] 對排擊[illegible] 全力을기우려 싸울것이다

[illegible] 우리의 決心을 無視하는 政府가잇다면 우리三千萬民族은 차라리 나라를爲하야 싸우다 죽을지언정 이를容納할수업다 愛國者라면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언제나 어데서나 獨立을爲하야 鬪爭할準備가 잇서야한다 最後의 一人까지 죽엄으로싸우자

韓民黨

일즉이 하지中將이 今年內로 朝鮮이獨立承認을 못바드면 [illegible] 想外의 危機에 逢着하리라고나에게 말한바 잇섯지만 이미케 될줄은 千萬 뜻밧게일이다 如何튼 이제와서는 左翼이나 右翼이

社說

죽엄이냐 獨立이냐

一

莫斯科二十七日發AP電은 三國外相會議의決定이라하야 「朝鮮에 美, 蘇, 英, 中四個國의 信託統治를[illegible] 委員會는 五年以內에는 [illegible] 五年이라는期限附로 [illegible] 「現解放國家 南北朝鮮行政[illegible] 現在朝鮮의 分割占領을 [illegible] 會議를開催한다」고報道하여왓다 日前 華盛頓電報가 莫府日 이야기를 報道하여 우리의消息을傳하여왓슬때에 우리는半信半疑하엿다 이러한消息이 다시 우리의귀에들리는것만도 不快한일이라하야 本欄을通하야 信託統治의絕對反對를主張한바잇거니와 이報道를받고서는 失望落膽 그어찌할바를모르는바이다.

二

우리는 이제까지 聯合國의 原意를 誤解하여왓다 그러나 [illegible]

三

八·一五以後 三千萬朝鮮人은 무엇을 하엿는가 [illegible]

四

嗚呼라 하늘은 우리와 함께하지않고 [illegible] 庚戌年 八月二十九日 [illegible] 이 다시오지아니하엿는가! 嗚呼라 三千萬同胞여 우리는 [illegible] 「獨立을다구」 「그러치아니하면 죽엄을다구」 [illegible]

우리에게即時自主獨立을달라

朝鮮에信託制實施

三國外相會議서決定

【莫斯科二十七日AP合同】二十七日로써 終結을본 三國外相會議에서 다음의 決定을보앗다고 觀測되고잇다

一、蘇聯, 美國, 英國及中國에依한 日本管理制의實施, 四個國理事會는 全會一致制를 採用하는 最終決定權을 理事會가잡는지 에아一더大將에게 그以上의 權限이 賦與되는지는 不明이다

一、原子力管理問題에 關해서는 一月開催의 國際聯合總會에서討議될提案이 採擇되엿다고한다

一、朝鮮에美, 蘇, 英, 中의四個國의 信託統治委員會가 設置될터 同委員會는 五年後에는 朝鮮이 獨立할수잇다는 觀測下에 五年이라는 年限을附한다 美, 蘇兩國은南, 北朝鮮行政의 統一을 圖謀하기爲하야 兩地區軍政當局의 會議를開催한다

外相會議決定事項

二十八日夜에放送

【華盛頓二十七日發合同】三國外相會議의 決定事項은 廿八日夕 華盛頓, 倫敦, 莫斯科에서 同時에 公表하기로되엿다

朝鮮緊急問題討究

美蘇兩國間에 二週日以內로

【華盛頓二十八日UP發朝鮮通信】四個國에依한 最高五個年朝鮮信託統治決定에 關한 三國外相의提議에對하여 昨日外交界에서는 이는 結果에잇서서 統一된經濟的安定을實現하는 彼我의實現을 意味하는것이라고 말하엿다 압으로 二週間以內에 蘇美會談에서 朝鮮의 緊急한問題를 討究하기로 決定하엿다는 莫斯科의 報道는 二十八度境界線으로 因하여 釀成된經濟的 其他諸障害를 除去하게될것을 同方面에서는 期待하고잇다

人民委員會

나 정의行爲는 三千萬民族이 一心團結하야 一九一九年三一運動以上의 [illegible] 이로써 朝鮮民族의 [illegible] 世界에 [illegible] 는 同時에 오는一月十五日 開催되리라는 美英蘇中 外相會議에 [illegible] 國外에 [illegible] 보여주어야할것이다 이제는 三千萬同胞가 [illegible] 委員會로서는 正式으로 [illegible] 가질것이라고 [illegible] 하겟다

朝鮮의 完全自主獨立은 우리人民委員會의 가장 重大한 政治的目標다 [illegible] 日本帝國主義에 抗爭하는 [illegible] 우리는 日本帝國主義와의 [illegible] 民族的總力을 集結하야 [illegible] 自主國家完成에 邁進할것이다

臨時政府樹立援助

民主的政黨團體를網羅

【華盛頓二十八日UP發朝鮮通信】三國外相會議에關한 報道에依하면 朝鮮臨時政府를 樹立하여 朝鮮內의產業, 交通, 農業, 文化의發展에對한 必要한對策을 講究케할것을 決定하엿다고한다 그內容은 다음과갓다

一、朝鮮臨時政府의 樹立을援助하기爲하야 南部朝鮮의美軍司令官과 北部朝鮮의蘇軍司令官代表로써 共同委員會를設置할것이다

二、모든提案을作成하는데잇서서는 同委員會는 朝鮮의民主主義政黨과 社會團體와 協議할것이나 同委員會의決定은美蘇英中의 政府에提出하여 檢討를받을것이다

三、또한共同委員會는 朝鮮臨時政府와 朝鮮內의民主主義政黨參加下에 信託統治援助方針을講究하고 朝鮮民衆의政治的 經濟的 社會的發展을圖謀하고 民主主義的自治政權의發展과 朝鮮의國家的獨立을助成하는것이다 共同委員會의提案은 朝鮮臨時政府에 協議하여 美蘇英中國政府에提出하여 最高五個年間의 信託統治에關한 四個國의 協定을지을것이다

四、朝鮮駐屯軍司令官代表는 압으로二週間以內에會合하여 南北朝鮮共通의緊急한問題와 行政, 經濟方面의 恒久的調節方針을 講究할것이다

美蘇兩當局에

韓民黨決意表明

韓國民主黨에서는 二十八日朝鮮에對하야 最高五個年間 信託統治한다는報道에接하자 美蘇駐屯軍當局에 各各代表者를보내여 지난二十七日 緊急會議에서 採擇된 「信託統治絕對排擊」의 決議文을提出하엿다

今後對策을討議

臨時政府緊急會議開催

光復以來 半萬年歷史에 一大汚點을 남기고 三千萬民族의 最大의侮辱인 信託統治制實施의 外電이 들려온 二十八日午後 市內竹添町臨時政府要人宿所에는 새마춤 各部要人들이 모여 [illegible] 金九主席과 國務元老 [illegible] 各要人들은 午後二時頃 [illegible] 國民黨 [illegible] 安在鴻氏 [illegible]

聯合國憲章全文

信託管理制란이런것 ④

第十二章 國際信託管理制度

第七十五條 聯合國은 其權力下에 國際信託管理制度를 設立하야 [illegible]

第七十六條 本憲章第一條所載의 聯合國의 目的에 依據하야 [illegible]

(가) 國際平和와 安全을 促進함

(나) 託管領土居民의 政治, 經濟, 社會及敎育의 進展을 增進하며 [illegible]

(다) 種族, 性別, 言語, 或은 宗敎의 相違를 分別치 안코 人權과 基本自由의 尊重을 提唱하고 [illegible]

(라) 社會, 經濟及商業上에서 聯合國全體會員國과 其國民의 平等待遇와 [illegible]

第七十七條 [illegible]

第七十八條 [illegible]

第七十九條 [illegible]

第八十條 [illegible]

第八十一條 [illegible]

第八十二條 [illegible]

第八十三條 [illegible]

第八十四條 [illegible]

第八十五條 [illegible]

極東委員會新設

十一個國代表로

【莫斯科二十八日UP發朝鮮通信】三國外相會議는 現在極東諮問委員會를 極東委員會로 改組하기로 決定하엿다 同委員會는 美, 英, 蘇, 中, 佛, 和, 加奈陀, 濠洲, 新西蘭, 印度, 比律賓의代表로 形成될것이다

八面鋒

◇ 獨立을달라 하여놓고 [illegible]

◇ 五年間이라는 期限이잇다하나 五年後에는 또五年이 [illegible]

◇ 三千萬人의 五年이라면 一億五千萬年

◇ [illegible]

內案品사선

우리工藝品(螺鈿漆器)에現代的인高級商品을기주어여러분께수용하여드립니다

美術工藝品

東洋物產商會

서울市本町二丁目一二三番地 電話本局二五〇二

戰爭업시 獨立업다

일어나서 自由의 날까지 싸우자

「모스크」에서 열닌 미국 영국 소련 세나라 외상회의(外相會議)에서는 조선을 오년동안 미영중소 네나라의 신탁통치(信託統治)로 하기로 결정하엿다고 한다 신탁통치라는 말이 무슨말이지 그문자가 귀에서루론만치 그내용은 자세히 알수 업스나 조선의 자주독립이 안된다는 말임은 틀님업는 일이다 이 소식은 삼천리 강산을 다시금 남의 속국으로 만든다는 말이오 삼천만동포를 한번 더 남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삼천만동포여 우리는 이 젓음을 명으로 알고 그대로 바더야 올흘것인가 아니다 일어나자 노예로 사는것보다는 자유로 죽는것이 쌧쌧하지 아니한가 이러나라 독립전쟁을 선언하자! 나아가자 자주독립의 길로! 싸우자 자유를 엇는 날까지!

大韓臨時政府가 政府로서 指導하라

신탁통치의 결정소식을 뭇고 새롭게 림시정부 숙소에서는 김구(金九)주석이하가 구수회의를 하는중이라 표한다 림시정부는 이미 한국한지 한달이 지낫다 그러나 정령운 당국파의 관계 또는 국내각정당파의 관계로 오늘까지 아모러한 구체적 활동을 하지못하엿으며 압날도 지행하여나 이 갑바치을 서동이 현외하고 잇섯을뿐이다 우리는 림시정부요 이외 피로운실정을 알지못하는 바도아니오 그것지에 대하야 오늘날까지 김통리해와 동정을가지고 하루밧비 림시정부가 정부로서 위령을 행하기를 고대하여왓다 그러나 오늘에당하야 극 어제와 가치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아니다 림시정부는 오늘부터 안될때가 왓다 새문밖숙소에서 떠 우리의 정부로서 나서지 아니하면 수궁으로 나아오라 그리하야 삼천만민중에게 갑바를 올니라 법령을 발하고 통합적 활시간이 업다 림시정부자체부터 독립전선으로 나서라 이것이 오롯하다 인 우리의 살길이오 림시정부의 갈길이다

三千萬이 하나로 政黨은 解體하라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엇지 살수잇슬가 백성이 업는데 정당이 어대잇슬가 오늘까지의 정당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야 잇엿다하면 래일의 정당도 그리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신탁통치 통일 시한다하면 정당이 모든 소용이 잇는가 오늘을 내가올려 네가쿨다는 서의의 시비를 할시가는아니다 정당도 맛당히 파거의 잘못을 깨끗이 시처버리는 의미로라도 자진하야 해산할 때가 왓다 그리하야 삼천만이 하나로 뭉치어서 오족 독립을 향하야 나아가자

國旗걸고 싸우자 獨立萬歲부르자

삼천만동포여 오년동안의 독립을 바라고 기다릴것인가 당장에 독립을 엇기위하야 싸울것인가 우리에게는 무거기업다 무엇으로 싸울가 피가잇는 파로써우자 이 강산이 죽엇스니 집집에 국긔를 내어걸자 정사하는 사람은 철전을 하자 학생은 배우는것을 그만두자 모든일터에서는 일을 쉬이자 할수만잇으면 하로동안이라도 삼천만이 죽을셈치고 싸우자 나아가자 거리로나 아가자 거리로 독립만세를 높이 부르자

우리의결의가 자주독립이 판결될때까지 굿세게 싸우자 우리는 우리가 굿세 결의를 시위할때는 바로지금이다

보라! 호외를 들고 격분하는 거리의 민중들

죽엄으로 信託統治에 抗拒하자

庚戌屈辱의 되푸리·찻자 祖國의 疆土

이번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정하는 미소영중(美蘇英中) 사개국의 공동관리아래 금후오개년간 조선을 신탁통치 하여 둔다는 소식은 三천만 우리 민족에게는 청천벽력이며 일본의 사형선고이다 도리켜생각컨대 단군건국이래 청사오천여년간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여 온 우리 역사에 복잡한 변동도 잇섯고 선진국가들의 구박서 흥망이 잇섯든것도 사실이지만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수잇든 민족의 정신에 씨슬수 업는 치욕을 가저오게한것은 실로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이래의 소위 해방되기 전까지의 파거 사십년간 이엇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삼천만이 저 예속보다 주고 압호로도 슬픈 선고를 밧게되엿스니 이엇지 해방의 즐거운 울파 자주독립, 건국 대업에 매진하는 세상하이 백성들이 꿈엔들 뜻하얏든것이랴 우리는 일즉이 아세아의 약소민족으로 태어낫것을 슬퍼도하얏고 역사와 민족적 비운에 아사 마침 면하지못하고 수족이 잇서도 행동의 자유를 취하지 못하고 빗치잇서도 광명업는 암흑상태에 시들어 압오려 살아오면서도 언제나 다시한번 반드시 차즐 광복(光復)의 위대한 역사의 날이 잇슬것을 밋고 새로운 합법적으로 새로운 지하운동으로 잔미족은 이름 업시 복바치는 통분과 억울의 눈물을 삼키고 싸워왓다 그동안 이나라의 광복과 미족의 해방을 위하야 영오에서 흉트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진 선렬혁명지사가 무려十五만명이며 철채에 얽매여 신음하든 투사는 수백만이엿섯다 이들 혁명가가 민중의 선두에서서 온갓 욕망을 저바리고 어떠한 북만의 밀림속으로 또 어느새는 광막무변한 몽고의 사막에서 또 파촉만리 이역에서 풍찬노숙으로 전전하며 싸워나온것도 오로지 조선의 광복 새로운 건국을 더 말할 나위도 업다

共同植民地化防止에 蹶起

잇처도지지안는 자난 八월十五일 우리는 연합군의 손으로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가치 해방되엿다 우리가 미영소중을 비롯한 연합군에 올린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진실로 글자그대로 마음껏힘것 고마움을 밧첫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차마 안하든 연합국 중 그러 무쪽으로 갈라논 소위 삼팔도선에 대하야도 수하하고 정의를 밋는 우리민족은 그들의 선전 파가치 다만 군사적인 일시적편의에의 한것으로 밋고 그간 수업시 울리고 참하는 가지가지의 불유쾌한 소식까지도 우직하게도 설미하고 평화와 자유의 정의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연합군의 선처를 기다려왓다 자주독립을 약속한 우리 삼천만이 구에 더운몸을 찌어지는듯한 마른벼락의 기별 즉 신탁통치란 이웬말이나 울어가면서 참고 울분을 기다리라는 강인한 인내의 정신은 최단계에서는 다시는 필요도업고 그런 무능한 태도는 꿈에라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다만 三천만 미족의 죽엄이나 삶이나의 결정적 명제가 이순간 우리에게 나린 엄숙하고 절대적인 요무다

보아라 사리와 사욕과 명예와 지위와 자아의 편견고집에 사로잡혀 저나깨나 압푸와 상호 배격으로 이쌍에 동포의 감각을 못잡아주고 영수의에 도취하며 백일의 욕조을 쫏는 이쌍의 정당인이며 전개국의 가 미족의 일해 스스로 공개되엿다 누구의 죄이냐 오늘날 당파싸움으로 일을삼는 그들에게 전죄를 우리민족은 안돌릴수업다 우리는 그들이 하루밥비 싸우지 말고 정치적 통일을 완성하야 국제적 련합회의에 임하야서 우리의 통일된정권을 수립하야 우리의 확연한 태도를 세계에 알릴것을 책촉하며 기다려왓섯다 오늘 연합국의 허울조운 공동신탁통치로 이야말로 조선의 공동식민지화를 입음이아이고 무엇이냐

참으로 새 나왓다 민족 총단결 총역량 총궐기의 생사를 결할 임대시련은 드되여 닥쳐오고야 마럿다 안저서 다시치욕 미래 사라잠을 기다리겟느냐 한뭉치가 되여 이러서서 판가리 마조미 싸울러에 삼천만 전 미족이 죽엄을 각오하고 이러서야 되겟느냐 거레에 방황하는 해방과 자유의 뜻을 그릇 알고 방황하는 이쌍의 아둔한 겨레여 이쌍의 거룩한 풍속과 정신까지 저바리고 갈팡질팡하는 일부의 남녀동포여 조국은 조선이 다 동포는 조선사람이다 강산은 우리의 조상이 직혀나려온 강토이다

이러서라 미족아 찾고야 말자 지킬된 우리의 자주독립을 이제 이순간으로 정당의 분파적 싸움을 거더치우고 동포 개개인은 자기의 용분의 입장에서 「신탁통치절대반대 조선자주독립전취」의 기시 아래로 세계 뭉치여 반만년의 역사를 빗내여 자휠것이다 우리의 아궤는 다만민속들이 잇슬뿐이니 그를 토대로 설지안흔 어떠한 체재도 여하한 외사의 존재도 용납할수업다 하로빨리 미족통일을 결속전개하라 사상이나 이론이나 계급이나 할때가 아니다 우선 차즐것을 차저노코 볼것이아닌가 어찌 또 조국이업는가 엽은 생을 지속할수 잇겟느냐 그러라면 차라리 죽엄을 택하는것이 국민으로서의 최대의 의무다 싸우자 어디까지 싸우자 안흐면 안된다 우리 전진목표는 만! 혈전주의(血戰主義)뿐이다

各界人士들의 抗議

피로獨立을찻자 너무도甚한侮辱이다 權東鎭氏談

이게무슨소리냐 조선사람을 모욕하여도 분수가잇다 우리는 왜적의 종이 되어 삼십육년동안 오늘의 해방과 완전독립을 바라보고 왜놈과 싸워왓다 이 전쟁에 잇서서는 비록 그 전적이야 적고 크고간에 연합군의 승리를 위하야 도와준 거짓이 아닌 사실이 아닌가 또 조선미족통역이 순조롭지 안은 이상통우엿다 하드라도 그것은 三千여년간이나 어둡족에서 종사리하든 우리들에게는 잇슬만한 파도 기적 현상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와서 우리가 나갈길은 단한가지 우리 三천만겨레의 혈관에는 저 세계적 시위엿든 삼일운동의 전통이 흐르고 잇스니 그때의 용기와 기개를 시한번 세계에 선양하야 피로서 독립을 찻는것뿐이다

다만 血戰主義로 손을맛잡고 民族統一 李克魯氏談

내가 늘 부르짓든 혈전주의(血戰主義)를 인제야 실천으로 행동에 옮길시대가 도라왓다 또한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또 한우(右)니 좌(左)니 할쌧 엿시 손에 손을맛잡고 우리의 미족통일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싸울때는 왓다 조선은 결국 조선이다 그리고 조선사람은 필경 조선사람이다 생각하여보라 대체 八월 十五일 이전 아니 三十六년간이란 기나긴동안 일본제국주의 철쇄 밑에서 우리 三천만 겨레가 한결갓치 바라고 바라던 동물의 호소와 절규가 무엇이엿든가 기미(己未)년독립선언발표당시를 되푸리회상하면서 이제 이런한 벼력갓흔 신탁통치설을 듯고보니 오장육부는 설레이고 피울음 장을 대에 도라간다 싸워야 되겟다 정면이 어린애 여인 할것엿시 손을 이잡고 최후의 피한방울 남을때까지 싸우지안흐면

너무도 痛憤할일 最後까지싸우자! 李敦化氏談

안된다 지저한 쌍과 으사 독사랑을 아론조국이란 잇슬수업다 쌍과 역사와 사람이 三대요소를 탈태(脫胎)당한 국가란 생각할수 업는것이니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우리 三천만겨레는 진실로 조국의 쌍을 역사를 사랑한다면 크게깨닷지안흐면 안된다

지금 들으니 미 소 영 중의 신탁통치위원회가 설치된다는것을 들엇다 지극히 통분한일이다 만약에 그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三천만의 의분은 극도에달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탁통치위원회가 설치된다 하야도 비렬한 타협을 가질필요는 업고 최후까지 혈전(血戰)을 하여야 한다

愛國의人柱되자 씩씩하게前進을 崔東旿氏談

오천년역사를 자랑하든 조선민족 청사에 그순국의 성혼을 피로기록할때가 도라왓다 로구나 마 죽엄으로써 애국의 인주가 되려고한다 나는 청년이 부려 우리미족이 대원하는 자주독립을 위하야 일대해방전을 전개하련다 막는자 누구이며 주저하는자 과연 누구인가 씩씩하게 나서자

本社廣告部 直通電話 本局② 三三八五番

謹告 … 西紀一九四五年十二月 日 서울 … 三洋製鏡所 白

朝鮮樂劇團 새해公演 獨立萬歲 歌劇 椿姬 10景 首都劇場 30日부터

새해公演 쥬―루란무劇團 探偵劇 大陸의 暴風 全三景 바리에테 무궁화원 全二〇景 서울劇場 正月1月부터5日까지

補缺生募集 京城第二公立高等女學校 一月二日부터 一月十五日까지 一月十七、八日 新堂町本校 電話東⑥一〇八番

滿月莊 朝鮮料理 券番指定 敦岩町四一九의六 電東三〇八二 舊松竹園跡

滿員謝禮 高級社交場 明星莊(에바카) 22日開業 서울鍾路二丁目求保빌딩裏 電話③一七三三番

朝鮮劇界 未曾有의企畫!! 樂劇團 浪漫劇團 會全線 協同公演 金史良作·延安亡命中의作品 胡蝶 三幕 (一名胡家莊의戰鬪) 金月美演出·金一影裝置 祖國愛에불타는朝鮮義勇軍 二十九勇士가倭軍을擊破한 血淚의記錄! 興奮한感激의 名篇! 三十一日 (正月一·二·三日은三回) 大陸劇場

三和工業 打綿機、繰綿機、自動車發生爐、自轉車各種附屬品、各種낫도、各種네지、各種떽기塗裝等加工製作註文에應합니다 但最新型打綿機第一次先着五十臺分에對하야豫約註文에應함 漢城市鍾路區鍾路二丁目八二永保빌딩二層 三和工業株式會社本社 電光三、五〇九·三九四二番

舊社名 株式會社元嘉納商店京城支店 京城淸酒釀造場 代表者 申鉉卓 金福永 李完穡 銘酒 太平洋(舊銘酒名菊正宗) 工場 서울市永登浦區番大方町 貿易部 서울市南大門通五丁目